

【제1주제】

농촌 전통지식 자원의 가치와 활용

이 해 준

공 주 대 학 교

【제1주제】

농촌 전통지식 자원의 가치와 활용

이 해 준¹⁾
공주대 교수

1. 머리말

(1) 이제까지의 농촌문화나 농촌지식의 활용 및 자원화 논의는 해당지역 자료의 철저한 검색과 정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민속학자들의 연구 성과나 역사학자들이 거론하는 중요자원의 경우도 지역별로 혹은 시기별로 차별성과 상대성이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연계문제도 적용하는 입장에서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활용하고 상품화한 전통문화들이 겨우 문화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전통 혼례, 다례, 한복 입기, 절하기, 그런가하면 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몇 가지로 대표되어 ‘외형’과 ‘형상화’된 것에 치중하고 있음을 본다.

즉 문화의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중하여 ‘보편론의 획일화’ 내지는 ‘프로그램 베끼기’ 등에 열중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농촌문화의 진정한 이해와 체험, 그리고 이를 통한 현대적 계승 활용의 기회를 스스로 없앨 우려도 보인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농촌의 지식, 농촌문화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챙기고 밝혀 낸 것보다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버려 둔 ‘한국문화의 원형’,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국문화들’이 지식정보 자원들이 농촌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2) 때문에 영역별로, 그리고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기초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지역별로 차별성 있고 매력 있는 농촌문화 자원들이 수없이 출현하리라 본다. 아울러 농촌문화 자원의 대상도 음식이나 민속놀이·세시풍속에 머물지 말고 자연이나 생태, 풍수, 민요, 지명, 설화, 민담, 특산물 등은 물론 농촌의 공동체 의식과 정신문화까지를

1) 공주사대, 서울대학원, 국민대학원 졸업, 목포대 교수(8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90) 공주대 박물관장(95-97), 한국역사민속학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충남 역사문화연구소장(01-04) 역임, [현재] 공주대 교수, 향토사전국협의회 부회장

대상하여야 할 것이다. 물레방아에 대한 정서라든가, 철 따라 이루어지던 농작물 흙치기, 풍년을 기대하며 펼쳐졌던 다양한 민속적 기원들, 두레 같은 공동체 조직의 문화적 특성들도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현재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의 전통토착지식과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단계로서 각 분야의 전통토착지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목록화하고, 나아가 이의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²⁾

2. 농촌전통지식자원의 가치

(1) 요즈음 청정과 생태, 환경친화, 웰빙 등등의 용어가 강조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혹은 당연함을 늦게나마 알게 되는가 싶어 반갑고 기대가 크다. 특히 오늘 같이 농촌의 문화를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그런 감회는 더욱 크다. 농촌문화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공생의 지혜”가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농촌생활문화가 지니는 가치, 의미는 다른 어느 것보다 “자연과 생태를 거스르지 않고”, “가식과 권위, 과장이 필요 없는” 정말 공생과 지혜 속에서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생활문화 그 자체였다(이해준, 「농촌문화·지식자원의 활용방향」 『농촌생활과학』 23권 3호, 농촌생활연구소, 2002).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진 농촌의 생활문화는, ① 한국의 기층, 토종문화를 대표한다는 점, ② 경험, 실용, 지속성이 검증된 문화라는 점, ③ 종합문화 생활공동체 문화라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의 저명한 문화학자들은 한국에 와서 오래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의 농촌마을을 찾는다. 그들은 농촌마을에 가야 고유의 한국문화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이 약해지고 농촌이 해체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전통문화의 단절과 해체를 뜻한다고 하는 것이다.

(2) 농촌의 전통지식자원은 오랜 생활의 경험에서 집적된 간결한 양식으로 ‘개인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 습득되고, 집단과 지역을 통해 전승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오랜

2) 김미희, 농업관련 전통지식기술의 개발가치 평가 연구.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가 하면 국가적 차원의 상설기구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9, 전통토착지식 발굴·개발 연구, 4~8 : 농촌진흥청, 1997, 농촌사회의 전통토착지식 및 전통농업기술의 목록화 : 농촌진흥청, 1998, 전통지식모음집(생산이용기술편 외 3책)

기간 동안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형성된 전통지식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을 뿐, 과학지식이 민속적으로 풀어 헤쳐져 민간에 녹아내린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그것들은 행동방식과 원리 등으로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실용적인 과학적 원리를 담게 마련이다. 만약 전통지식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도태되어 사라진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환경에 맞게 새롭게 변모하려는 가변성과 효율성 추구의 속성도 갖고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범주는 생활전반에 두루 걸쳐져, 자연과 녹색, 생명, 생태, 건강 기술 등 매우 넓다. 또한 그것은 현재의 실용을 넘어 미래에 대한 예측인 ‘징후’와 ‘해석’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거개가 농촌생활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유심한 관찰로 터득한 지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특히 농촌전통지식자원들의 전승력은 신화·전설·설화·속담·속신어·세시풍속·민간요법 등에 포함되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3)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중시되고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역시 “농촌사람들의 숨소리”와 “농촌의 꿈삭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농촌의 전승문화가 요즈음 각박해진 <농촌현실 극복의 개발 혹은 경제적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 그와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 ① 이어가야할 자존심
- ② 지켜야할 문화전통
- ③ 현대사회의 부정적 문화상을 극복할 대안

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적어도 농민 스스로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강점에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불분명하면 결국 농촌을 半 도시로, 혹은 도시적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넘겨다보거나, 매카니즘에 경도되어, 아니면 경제적 마인드가 우선하므로써 “자신의 보배들”을 방기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농촌문화가 지닌 실질적 경쟁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논의에서

- 농촌 현실의 철저한 분석 ← 농촌 전통문화의 이해
- 적어도 ‘농민’과 ‘연구자’는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수집 정리에 대한 투자와 노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전통지식자원의 철저한 기초조사·정리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문화자원들을 충실히 조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것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 콘텐츠를 철저히 수집·정리하지 않고 보물찾기 식 문화소재 발굴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는 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작업이며, 후속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이 소홀하면 문화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하는 모습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문화와 역사는 인간이 환경과의 부단한 적응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에 적응하거나, 도전하거나,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방식을 선택해왔고, 그것을 통칭하여 문화라 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역사와 문화 속에는 항상 그 문화의 주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농촌문화의 경우에도 그 마을의 특수한 배경과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음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고향마을의 이야기와 정서가 있는데 이를 살려내지 못한 자원활용(상품화)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경쟁력이고 상품가치 있는 차별성이기 때문이다.

잘 생각하여 보면, 농촌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수백 년, 혹은 그 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우리의 선조들에 의하여 '점점'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자 실질적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근본적 이해를 경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은 외국 문화가 '선진' '현대' '고급'이라는 명목으로 전통문화를 압박하고 있다. 스스로의 가치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전통과 자원을 되살려 "특성화", "차별화" "상품화"하여 소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농촌문화 자원의 대상도 음식이나 민속놀이·세시풍속에 머물지 말고 자연이나 생태, 풍수, 민요, 지명, 설화, 민담, 특산물 등은 물론 농촌의 공동체 의식과 정신문화까지를 대상하여야 할 것이다. 물레방아에 대한 정서라든가, 철 따라 이루어지던 농작물 흙치기, 풍년을 기대하며 펼쳐졌던 다양한 민속적 기원들, 두레 같은 공동체 조직의 문화적 특성들도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화 콘텐츠들은 종합된 농촌문화의 한 부품들이다. 따라서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면서 또한 전체를 복원 구성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즉 농촌문화와 전통지식들은 오늘날의 지식처럼 전문화, 분점화되어 있지 않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나, 음식의 재료와

가공 기술을 알기 쉬운 매뉴얼로 상세히 정리하였다고 해서 그 음식이 같은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통합된 지식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많다.³⁾

끝으로 콘텐츠 수집·정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가 상호 연계성, 혹은 서로의 기능과 역할 인정의 측면에서도 편차가 심하다. 계획·설계자가 어떤 성향이나에 따라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는 무시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삼자는 결코 서로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일 때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점이다. 콘텐츠 정리는 소프트-하드웨어의 연계체계 속에서 활용의 방안을 고려하고 콘텐츠를 정리하여 주고, 이를 응용할 개발자들은 콘텐츠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만약 수적으로 제한되고, 객관성을 잃은 농촌문화 콘텐츠가 임기응변적으로 활용 마니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농촌의 문화정체성을 왜곡·굴절하거나 차별성 없는 모습으로 형상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⁴⁾

4. 농촌문화, 전통지식자원 계승과 활용방향

(1) 특성화·차별화가 경쟁력 : 그런데 문화자원의 활용은 미래지향적 아이디어와 소재의 다변화·다양화로 성패가 좌우된다. 농촌 전통문화자원의 활용⁵⁾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결코 아니며, 역시 특성화와 차별화가 경쟁력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 ① 기초자료(콘텐츠)의 정리문제
- ② 육성 아이템 선정과정의 객관성 문제
- ③ 유기적 효용성과 경쟁력 문제가 철저하게 점검

3) 농업사를 전공하는 이호철 교수는 우리나라 농서(農書)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농서에는 당대의 농업기술만이 아닌 종합적인 문화가 그 속에 배어 있음을 강조한다. 농서에는 당대의 농업기술은 물론이고, 건축·의학·문화·세시·지리·생태·풍수·식품·언어·문학·음악 등등 전 분야의 분야가 망라되어 함축된 타임머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15세기의 농서인 『산가요록』에는 친환경적 온실의 운영이 묘사되고 있는데, 급하다고 이것을 오늘날의 온실과 비교하면서 ‘대단히 앞선 기술’만으로 평가하고 말면 안 된다. 그러한 기술이, 구조가 나타난 당대의 문화와 기술사 배경, 종합적 지식 정보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그런 사례는 축제와 이벤트, 문화재 복원정화(건축), 하드중심 관광개발 등에서 수없이 지적된다(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지역문화 현안과 대안』(사업결과보고서), 2001)

5) 대체로 지금까지의 농촌전통문화자원 활용의 문제점은 ① 의식, 방향성 : 지역개발, 관광개발, 정비류의 계획이 아직도 많음 ② 마을문화의 브랜드화 개념과 특성 부각 미흡 ③ 주제 산만, 혼선(특화 가능성 부족) : 백화점식 나열과 유사 아이디어 ④ 주기, 절기별, 생업별 분석과 연계 노력이 없어 활용상 생동감 결여 ⑤ 자료관 : 내용, 활용, 예산, 의지로 마을 정체성, 전통 보강 ⑥ 재미와 생태 경관은 좋으나(공연장), 마을민·마을문화는 없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받는다.

이제까지는 마치 보물찾기 식이거나 특정부분에 현혹되어 너무 쉽게, 그리고 철저한 자료의 검색과 정리과정이 없이 상품화(활용)된 경향이 많다. 향후에는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일수록 철저한 연구 정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⁶⁾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야를 가지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챙기고 밝혀낸 것보다 몇 십 배 혹은 몇 백 배의 지식정보 자원들이 우리의 농촌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 평가가 전도되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버려 둔 '한국문화의 원형 =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국문화들'이 많다.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농업의 구체적 사례들이라거나, 마을마다 어구에 있었던 미나리밭이 오늘날의 오페수 처리장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 현실이다. 이런 류의 지혜와 삶의 슬기들이 다름 아닌 농촌의 지식자원이며 미래경쟁력인 것이다. 때문에 지역별·영역별로, 그리고 지속적 노력을 통하여 기초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차별성 있고 매력 있는 민속문화 자원들이 수없이 출현하리라 본다.

(2) 대상자원의 선정 문제 : 농촌문화 자원의 내용도 음식이나 민속놀이·세시풍속에 머물거나,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면 곤란하다. 즉 재생, 활용할 농촌문화자원의 대상을 그냥 있는 것이나 남들이 이야기하는 자료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자세보다는

- ① 농촌, 혹은 해당마을 특성이 물씬, 냄새가 물씬 나는 자원
- ② 문화 특성을 완벽한 모습으로 전승하거나 종합체계화(세트화)가 가능한 자원
- ③ 한국 농촌문화의 변화 패턴, 변천상을 밝혀주는 자원
- ④ 현대와 접목, 연계활용이 주목되는 자원

등으로 선별하여 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제부터는 자원의 개발 대상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자연이나 생태, 풍수, 민요, 지명, 설화, 민담, 특산물 등은 물론 농촌의 공동체 의식과 정신문화까지를 대상하여야 할 것이다. 물레방아에 대한 정서라든가, 철 따라 이루어지던 농작물 훔치기, 풍년을 기대하며 펼쳐졌던 다양한 민속적 기원들, 두레 같은 공동체 조직의 문화적 특성들도 모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속놀이나 음식이 특화자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연회 과정이나 가공 기술, 혹은 판매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가능했던 자연지리적 조건과 마을의 역사, 생태와 산물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농촌의 청정 환경과 강과 산지, 평야지대가 지니는 전원적인 촌락풍물이 역사문화유적,

6) 이해준,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52회 국제학술발표대회 발제, 2002.

풍광, 민속, 음식문화 등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될 때 독보적인 상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농촌문화 자원의 발굴 정리와 함께 마을문화의 여러 흔적(생활유적)들을 복원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농촌문화를 체험하려면 농촌문화가 생겨났던 마을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의 전원풍경을 되살리고, 그 옅한 고향의 정취가 살아 있는 가족단위의 쉼터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예컨대 원두막이나 정자, 사랑방과 장승, 빨래터나 물레방앗간, 초가집과 기와집, 동구 밖의 장승과 선돌, 상여집과 방앗간, 당산나무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것이다⁷⁾.

(3) 수요자 층위별 개발 : 그런가하면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수요층의 요구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범위, 대상, 수요층의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감각의 획일적 관광개발 아이디어는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다.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그에 적합한 수준별, 목적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수요층의 기호와 흥미,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 ‘역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골라서 먹게 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개발은 강한 문화 특성과 내용성이 강조되어 “해당 지역에서 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활용하고 상품화한 전통문화들이 겨우 문화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전통혼례, 다례, 한복 입기, 절하기, 그런가하면 민속놀이 몇 가지로 대표되어 ‘외형’과 ‘형상화’된 것에 치중하고, 지역적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 즉 문화의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중하여 ‘보편론의 획일화’ 내지는 획일적 중앙 모델의 ‘매판적 답습’,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베끼기’ 등이 생기게 된다. 그런가하면 다종다양한 농촌의 문화를 개발 접목하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도시인의 휴식과 향수, 목가적인 낭만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농촌문화의 진정한 이해와 체험, 그리고 이를 통한 현대적 계승 활용의 기회를 스스로 없앨 우려도 보인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한 적용문제이다. 교사들의 참여 유도로 “의식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김미희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처럼 세시풍속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 풍년 기원 및 추수감사 기능 - 기복(개인, 가정, 마을)신앙 기능
- 제액방지(액막이) 기능 - 조상숭배 및 어른 공경의 기능
- 건강증진 및 병의 치료 예방기능 - 보양 및 영양보충의 기능
- 사회결속(통합)의 기능 - 전통예술 전승의 기능
- 유희 오락적 기능 - 생산축진의 기능 - 사회교육적 기능

7) 2001 지역문화의 해 『백가쟁명』 자료집 중의 강원도 마을민속문화 소프트 개발사례(김진순, 코리아루트) 참조. 이는 강원도 삼척의 사례로 ① 음식 : 강원도 호도막걸리 특산품 개발 ②민속기행코스 : 가곡면 서낭당 강원도 산골마을 서낭당 기행 ③ 문화관광 : 내미로리 천제와 산메기 ④ 특산품 : 삼베마을 하장의 체험관광 등등.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종합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마을 자료로 추가와 보완, 접목이 가능한 자료로 <시기별 - 생업별 - 절기 명절별> 구분이 가능하고, 관련 내용도 <관련행사- 놀이 - 음식 - 도구 - 노래 - 전설 - 유적 - 인물> 등등으로 매우 증충화 되어 있다.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식이 있다면 이러한 제 기능과 성격을 충분히 소화하여 프로그램화 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것들을 모형이나 교육자료로 만들어 보여주면서, 그 변천과정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 과정 과정들에 묻어 있는 전승문화의 모습(전설, 민담, 유적, 노래, 지명, 의미)들을 알리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 계승과 활용의 방향 : 전통지식은 전통사회에서는 일상생활 그 자체였다. 농업생산이 주류를 이루던 산업구조 속에서 무형의 지식은 경제적 가치로 결코 인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전통지식은 질적 고급성과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경제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지식이 근대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상당부분 도태된 가장 큰 이유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전통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진보 성향의 근대화에 저항을 받으면서 생활습속들이 급격하게 사라지거나 쇠퇴하게 되었다. 때문에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도태된 전통지식이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재활용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그 자체로 ①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과 ②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지식의 활용 가능성은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다수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 변화 가능한 인자를 적출해 내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지만 손 없는 날을 기해 이사를 하던 옛 풍습은 오늘날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시민들의 이사에서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삿짐 운송업을 하는 화물차 웹 사이트의 달력에 손 없는 날을 표시해 주는 사례는 전통지식의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야광귀, 기우제, 장승, 달집태우기 등이 민속동화로 재구성되어 호응을 얻고 있는 경우나, 전통문양을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 등은 전통지식이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본보기이다.

마을을 단위로 일정한 공간에 모여 살던 전통사회의 삶의 방식이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다. 과거 공동체 사회에 공유되어 왔던 생활방식과 그 속의 생활지식들도 자연히 기능을 상실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개인의 신변과 길흉화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예컨대 관상, 사주, 작명, 궁합, 토정비결 등은 여전히 농어산촌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다.

전통지식을 오늘날 실생활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고 또한 이미 단절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 접촉하면서 습득된 전통지식은 대개 구전

의 형태로 전승되어 왔으며 공간적으로도 삶의 근거지인 일정한 소지역을 단위로 공유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지식은 대중매체나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며 인터넷이 중요한 정보습득의 매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식정보의 상당부분을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으므로 전통지식의 현대적 활용이란 역으로 대중매체나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정보로 변형하고 가공할 필요가 있다. 비단 인터넷 뿐 만이 아닌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이 가능해졌으므로 전통지식은 다양한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재가공하여 이를 현대생활과 접목하는 역순을 밟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5. 맺 음 말

21세기의 화두로 삶의 질, 문화의 세기, 지식정보사회 등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인 지식과 문화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모두 이유가 있다.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부르짖는 구호도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일례로 근대 보건의료 체계 내에 전통의학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지체권을 인정할 경우 높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촌 공동체문화 또는 민속문화를 강조하면서 가치를 부각시키는 까닭은 농촌문화가 비단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문화가 사는 것은 지역문화와 도시문화가 사는 길이며, 농촌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서울문화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와 인류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농촌의 문화자원들은 종합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들을 필요에 따라 분해하거나 해체하면 곤란하다. 농촌문화는 작게는 지역문화이지만 사실은 민족문화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한국문화의 전형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는 한국의 유교문화 전형을 보려 하거나 민속문화의 전형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촌마을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는 한결같이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농업활동과 함께 형성 전승되어 온 까닭이다.

따라서 농업이 망하고 농촌이 해체된다는 것은 사실상 민족문화의 단절과 해체를 뜻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각종 세시풍속을 비롯한 전통문화는 모두 농사일과 더불어 있었던 것이고, 마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한 것들이다. 필자가 역사와 문화가 깃든 마을 만들기를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⁸⁾ 농사짓는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그래야 민속도 전통음식도, 세시풍속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시풍속이 특화자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연회 과정이나 가공기술, 혹은 판매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가능했던 자연지리적 조건과 마을의 역사, 생태와 산물 등이

8) 이해준, 2003.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역할」 문화관광부 정책토론회 발제.

어우러지는 종합 작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농촌의 청정 환경과 강과 산지, 평야 지대가 지니는 전원적인 촌락풍물이 역사문화유적, 풍광, 농민의 순한 정서와 후한 인심, 그리고 그들만의 풍속과 음식 등등이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될 때 독보적인 상품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 발제관련 이해준 저서 및 논문

- 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공저)
-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 국립민속박물관(책임편저)
-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 1998 『한국의 세시풍속』 (국립민속박물관, 책임연구)
-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 1990,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 1992, 「촌락변천사 연구자료와 정리방안」, 「김택규교수 정년기념논총」
- 1993, 「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 『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1996,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65, 1996.
- 1998, 「한국지역문화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98세계문화엑스포국제학술회의발표논문집』
- 2000, 「서남해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2001, 「지역문화 현안과 대안」 (지역문화의 해추진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공동연구)
- 2001, 「생활사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 2002, 「지역문화 콘텐츠·소프트웨어개발과 문화관광」, 한국관광학회 제52차국제심포지움논문집」
- 2002, 「농촌문화·지식자원의 활용방향」 『농촌생활과학』 23권 3호, 농촌진흥청
- 2003, 「마을사 조사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문화』 12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 2004, 「농촌세시풍속의 활용과 계승」 농촌진흥청 심포지움

【토론 1】

농촌전통지식자원의 가치와 활용 토론

=농촌지식자원의 소비자 만들기(사회화)를 위한 제언=

정 동 찬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사전시연구팀장

이해준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면서 향토문화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이라고 하면 항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생님께서 적시하신 모든 것들을 교과서로 여기고 모두가 매진하여 농촌지식자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되살리고 아끼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농촌을, 또는 우리 고유의 문화, 과학, 기술을 접근하는 자세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시각으로 좁혀 본다면 첨단과학이라는 미명아래 과학기술의 뿌리인 농촌생활과 고유문화자체를 비과학, 비합리 심지어 미신으로까지 치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자인 저도 「겨레과학」을 주창하여 우리 겨레 문화의 뿌리가 되는 물레방아, 쟁기, 조선낫 등의 농기구와 용기, 가마솥, 솥, 염색, 한지, 접착제, 옷칠 등 생활용구와 물질, 소재 등을 분석하여 정리하면서 교과서와 정부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유산은 설명하면 과학이 되고 되살리면 첨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과학슬기가 농촌 생활과 문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가장 주변에서 많이 쓰는 물질, 소재, 용구들은 변하지 않는 과학슬기가 듬뿍 담겨 있고 부작용이 가장 적으며 경험이 많은 기술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패묵은 유산(정신과 물질)으로 치부하면서 그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과학슬기), 무엇을 가지고(물질, 소재, 도구 등), 어떻게(제작공정, 방법, 기술), 왜(쓰임새)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년, 20년 뒤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그 속성에 맞출 필요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지식을 제대로 도출하여 활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지식자원의 생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오래되고 녹슨 것으로 치부되어 온 모든 농촌지식과 자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철저한 조사기록과 함께 그 기전을 밝히고 농업을 산업과 과학, 나노, 바이오의 보고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과학·산업과 멀다는 생각을 바꿔가는 올바른 인식체계를 이끌어 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물질자원의 경우, 과학분석으로 그 원리를 밝혀내고 정품과 정량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농촌지식자원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정신과 물질유산에 숨어 있는 과학슬기의 건강성(Wellbeing : LOHAS)과 역동성 등을 널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셋째. 농촌지식자원의 흥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촌은 도로망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 인구감소와 소득저하 현상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농촌 자체가 안정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충격의 강도를 조절하여 고유의 지식자원에 변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한 방법으로 적게는 엄마를 사로잡는 마을탐방, 마을특산축제로부터 농촌지식자원을 바탕으로 한 농업기술벤처 EXPO, 마을자원 EXPO 등등 국제 EXPO를 통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지식자원의 사회화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적재산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외에 농촌지식자원의 소비자를 만들어 명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치, 두부, 구들(온돌)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구들(온돌)과 신을 벗고 사는 생활은 “한국을 본받자”는 기치아래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생활을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 2】

<농촌 전통지식자원의 가치와 활용> 논평

이창식
세명대 교수

발표자의 기본 논조방향에 동감한다. 전통지식자원의 문제의식은 매우 현실성이 있다. 활용의 방향 역시 구체적인 측면이 있다. 지식자원의 하위범주에 대한 사례로 알맞게 제시되었다. 시의 적절한 제안이다. 이는 농촌 문화자원에 대하여 학문적 접근과 현황을 온전히 통찰하였기에 가능한 글이라 생각한다. 몇 가지 쟁점을 부각시켜 토론해 보고 싶다. 비슷한 생각을 조금 관점을 달리하여 토론하는 경우도 있다.

쟁점1 : 농촌전통지식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 부분이 어려운 과제다. 주체로 보아 농촌사람들의 마음씨, 솜씨, 맵씨, 말씨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원형적 가치로 기술하는 문제다. 이들 지식자원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관점에 따라 인식의 범위가 너무 크다. 발표자의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는 범주에 포함되지만 주체를 강조할 경우에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른바 4씨(?)에 대한 학술 체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쟁점2 : 농촌전통지식자원의 조사와 정리도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과정에 동시다발로 지정, 발굴, 원형재현, 상품화제시 등이 전개되어야 한다. 문제의식이 없는 조사와 정리는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특히 전통적 농촌문화의 기반이 붕괴되거나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지식자원의 보유자 수준 차이는 엄청나다. 지식자원 분야별 최고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엇보다 전통지식자원의 보유자(?)가 점차 사라지는 경향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급하다.

쟁점3 : 특성화와 차별화가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다 보니 지나치게 '관광', '소득'에 치우쳐 있다. 단기적인 처방의 계승방안도 중요하고 장기적인 처방의 활용방향도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기농 생태농업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수 환경을 인정하는 관리체계와 이른바 신지식 친환경적인 농업기반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후자는 세계적 추세라고 해도 천편일률적으로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쟁점4 : 대상자원의 선정문제에서 '주체의 체질에 맞는 자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토종, 옛것, 뿌리 있는 것 등 가장 농촌다운 것이 중요하다가 하였는데 그 지역 농촌사

람들의 체질에 맞고 궁합이 맞으며 지방색이 강한-대상자원을 복원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타 지역의 벤치마케팅 때문에 유사자원에 매달리고 있다- 지역사람들이 진정 즐기는 것만이 살아있는 대상자원이다. 인기 패키지 때문에 유사, 가짜 대상자원이 지나치게 부상되고 있다.

쟁점5 : 수요자 층위별 개발에서 농촌전통지식자원의 대물림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멘토링 전략이 새로운 공동체 문화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듯이 수요자 계층, 연령, 성향 등을 초월하는 정(情)과 두레 대물림 위주의 개발이 요청된다. 전통학교라는 이름으로 나온 개발 프로그램이 실패한 이유는 지나치게 수요자 층위별 교육 및 체험의 편의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쟁점6 : 농촌전통지식자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수용문제다. 전통지식자원 관련 교재에는 '사실'을 가르쳤지 '가치' 또는 '21세기 미래지향적 전통'을 가르치지 않았다. 교과내용에도 편재되지 않았다. 행사용 관광용으로 회고 삼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관련 정책입안자와 이 방면의 전문가가 나서서 혁신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디지로그에 걸맞게 전통지식자원의 진국을 첨단문화산업으로 녹여내는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 지역농촌인재가 독보적인 상품성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믿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변화는 절실하다고 하겠다. 거점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고려할 만하다.

쟁점7 : 농촌전통지식자원 상품화의 국제규격화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문은 발표자나 토론자의 범주를 넘는 주제라고 생각하나, 농촌문화의 자생적 차원에서 이런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기관 설치 문제 등을 거론해야 마땅하다.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통지식자원의 지적 재산권 문제도 그렇다. 자원의 활용에 대한 비전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자원의 토종DNA를 농촌 살리기의 지적 재산으로 관리하거나 환원하는 문제는 단순처방전이 아닌 국가 단위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특화안으로 나와야 한다.